

2010년 12월~2011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지난 11월 25일에 발표한 축산관측 겨울호에 따르면 한우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한우 수소 600kg 기준 산지가격은 470~490만원, 12월 돼지고기 kg당 지육가격은 4천100~4천300원으로 전망했다. 또 12월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1천500~1천700원, 계란은 생산량 감소로 12월~2011년 2월까지 평균 산지가격은 1천100~1천300원으로 전망됐다. 또 오리는 12월~2011년 2월 3kg당 7천800~8천100원으로 전망했다.

>>> 한육우

※ 12월 한육우 사육두수 292만두 전망

지난 9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95만두로 전년동기대비 30만9천두로 11.7% 증가했다. 그 중 한우 사육두수는 278만8천두로 12% 증가, 가임암소 두수는 120만8천두로 전년동기대비 11만7천두로 10.7% 증가했다. 지난 1~10월 정액 판매량은 전년동기보다 5.5% 증가한 195만 스트로우로 이는 상반기까지 송아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농가의 한우 번식 의향이 높게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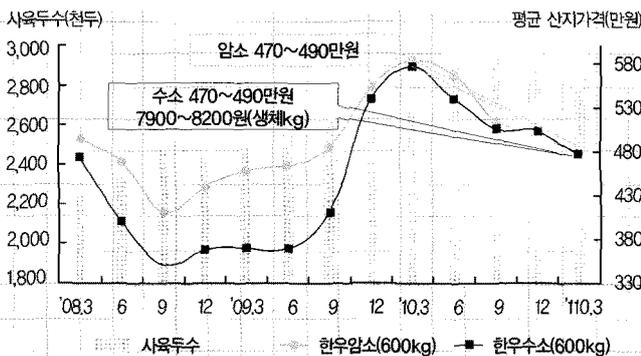
12월 이후 송아지 입식의향을 조사한 결과 송아지 입식을 당초보다 증가시키겠다는 농가의 비율이 9월 4.1%보다 높은 8.7%로 조사됐다. 지난 9~11월에는 송아지 생산 증가분 보다 도축증가분이 많았지만 올해 연말과 2011년초까지는 송아지 생산 증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2월과 2011년 3월의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각각 10.5%, 10.4% 증가한 292만두, 299만두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2011년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2011년 2월 큰소가격 470~490만원 전망

지난 1월 수소 평균 산지가격이 586만원을 정점으로 11월에는 493만원까지 하락했으나 평년동월 대비해 2.9% 상승했다. 암소 가격 482만원으로 1월 585만원보다 17.6% 하락해 전년대비 16.1%, 평년대비 8.1% 하락했다. 지난 11월 수송아지 가격은 206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1% 하락해 전월대비 9.4%, 평년동월대비 5.9% 하락, 암송아지 가격도 196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3% 하락해 전월대비 5.4%, 평년대비 13.7% 하락했다.

도축두수와 수입량 증가로 2010년 12월~2011년 2월 한우 산지가격은 600kg 기준 암수 모두 470~490만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아지 가격은 200~220만원으로 전망된다. 연말과 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12월과

■ 한육우 사육두수 및 산지가격 전망



2011년 1월 한우 가격은 11월보다 상승하지만 2월에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1년 3월 이후 한우 산지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출하 지연된 물량이 홍수 출하로 이어질 경우 가격은 전망치보다 낮을 수 있다.

>>> 돼지

12월 사육두수 984만두, 2011년 3월 973만두 전망

9월 사육두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육두수가 늘어 올해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에 지난 1~10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51만톤으로 전년동기보다 3.7%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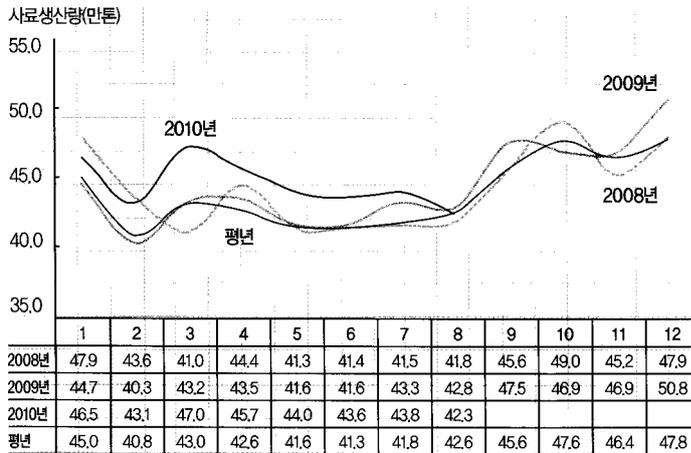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면서 8~9월 연속으로 감소했던 배합사료 생산량이 10월에는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9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동월보다 3.4% 감소한 45만9천톤이

었다. 모돈용과 육상용 사료 생산량은 전년동월보다 각각 9.0%, 4.4% 감소한 반면 자돈용 사료는 14만9천톤으로 전년동월보다 0.7% 증가했다. 지난 10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9만5천톤으로 전년동월보다 5.4% 증가했다.

농가의 돼지 사육의향은 2011년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돼지 사육두수는 984만두로 전년동월보다 2.7% 증가하지만 9월보다는 0.6% 감소한 것으로 전망된다.

분만율 저하와 사료비 부담으로 2011년 3월 사육두수는 전년동월보다 0.4%, 12월보다는 1.1% 감소한 973만두 전망된다.

■ 양돈 배합사료 생산량 동향



2011년 1분기 지육가격 kg당 4천200~4천400원 전망

생산성 저하로 비육돈 출하가 지연됨에 따라 10월 전국 평균 지육가격은 전망치와 비슷한 kg당 3천817원으로 전년동월보다 3.9% 상승했다. 이는 국내산 가공육 수요가 증가해 지육가격이 강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평균 지육가격은 3천968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3% 높은 수준이지만 11월 하순에는 전년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돼지고기 전국 평균 지육가격은 4천100~4천300원으로 싱농가격은 110kg 기준 31~33만원으로 전년동월보다 1~4%, 평년보다 9~14%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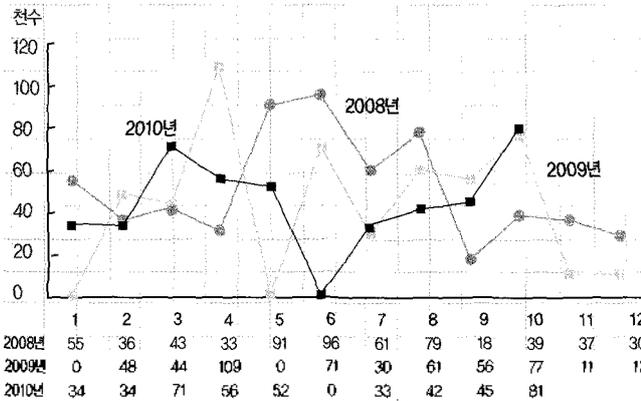
급격한 기후변화와 질병 등의 큰 약재가 없다면 2011년 1분기 지육가격은 kg당 4천200~4천400원으로 올해 동기보다 7~12%, 평년보다 16~21%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4월 지육가격은 kg당 4천400원~4천600원으로 올해보다 2~6%, 평년보다 10~14%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며 2011년 5월은 올해보다 5~12%, 평년보다 4~11% 높은 kg당 4천500~4천8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계란

● 12월~2011년 2월 계란 생산 감소 전망

상반기 지난가와 산란노계 수출 증가로 노계 도태수수가 증가했으나 3분기에는 계란가격 상승으로 도태수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했다. 산란계 수수 감소와 더불어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섭취량 감소로 2010년 3분기 산란용 배합사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46만3천톤이었다. 농가 조사결과 11월 현재 산란계 평균 산란율은 전년대비 0.5%p 상승하여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에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12월~2011년 2월 산란계 수수는 감소하여 계란생산량은 전년동기에 비해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연시에는 가공수요와 설 수요 등으로 계란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로 설 이후 계란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산란종계 입식 동향



※ 자료: 대한양계협회

● 12월~2011년 2월 계란가격 1천100~1천300원 전망

산란용 닭 수수 감소와 생산성 저조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여 지난 11월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13.9% 상승한 특란 10개 기준 1천247원이었다. 12월~2011년 2월에는 병아리 입식 감소에 따른 산란계 수수 감소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기간의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1.9~19.2% 상승한 1천100~1천300원으로 전망된다. 계란 소비자 가격은 8월 이후 산지가격 상승과 더불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2월~2011년 2월 산지가격의 강세로 계란 소비자가격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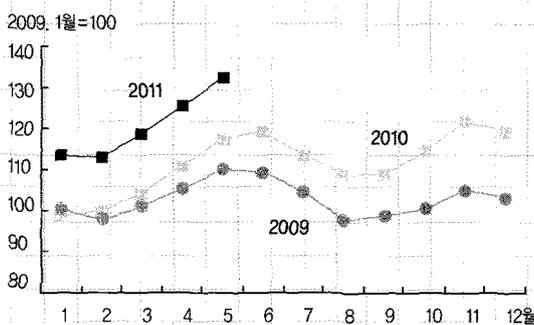
>>> 닭고기

● 12월 도계수수 전년대비 14.1% 증가 전망

육계사육수수 증가로 12월 도계 수수는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한 6천249만수로 전망된다. 10월 중순까지 국내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10월 닭고기 수입량은 8천158톤으로 전년대비 27.5% 증가했다. 국내 닭고기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12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5.3% 감소한 5천5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1월 14일 기준 닭고기 냉동 비축물량은 전년대비 19.7% 증가했으나 적정 재고보다는 낮은 상태이다.

앞으로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비축물량과 도계 수수가 증가해 12월 닭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대비 12.2% 증가할

■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자 패널자료 분석결과 2010년 가구당 4주 평균 닭고기 구매량은 1.9kg으로 2009년 동기간 보다 5.6% 증가했으나 하반기 들어 닭고기 소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2월 산지가격 1천500~1천700원

총계 입식물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총계 사육수수가 늘어나면서 닭고기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 11월 육계 산지가격은 생체 kg당 1천640원으로 전년대비 17.8%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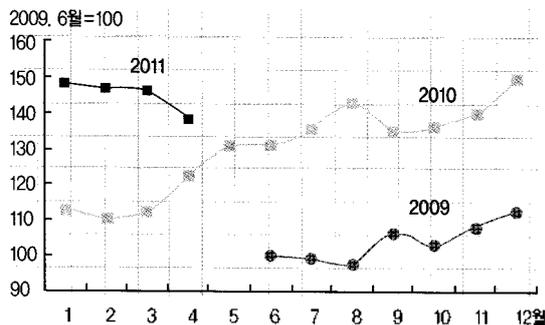
현재 병아리 가격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가격 상승요인이 있다. 그러나 비육물량과 도계수수가 증가해 닭고기 총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12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가격 하락세가 반영되어 12월 소비자 가격도 전년대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2월 육계 생체 kg당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16.2~26.1% 하락한 1천500~1천7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말 닭고기 소비가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 12월 산지가격은 전망치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

>>> 오리

12월~2011년 2월 도압수수 1천743만수 전망

종오리 입식 증가로 병아리 생산이 늘어 12월~2011년 2월 도압수수는 전년보다 18.4% 증가한 1천743만수로 전망된다. 지난 1~10월 오리고기 수입은 1천683톤으로 전년대비 357.7% 증가했다.

■ 오리 생산 잠재력 추이



지난 5~8월 훈제 가공품 물량 부족으로 오리고기 수입이 급증했으나 이후 국내 공급량이 증가해 감소했다. 생산성 저하로 국내공급 증가량이 소비 증가량보다 적어 12월~2011년 2월 오리고기 수입은 전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입 및 도압수수가 증가해 12월~2011년 2월 오리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보다 1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자조사 분석결과 보양식 및 저지방 선호 추세에 따라 4분기 오리고기 소비는 전년대비 2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연말수요로 오리고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월 설 연휴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2011년 2월 산지가격 7천800~8천100원 전망

공급량 증가로 오리 평균 산지가격은 6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도압수수가 감소해 11월에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 10월 오리 산지가격은 생체 3kg당 6천500원으로 전년대비 24.8% 높게 형성됐으며 11월은 6천783원을 기록했다. 12월~2011년 2월 오리 생체 3kg당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9.9~24.5% 상승한 7천800~8천100원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산성 저하로 12월~2011년 2월은 도압수수 증가율보다는 소비 증가율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